

## 아버지는 왜 외톨이가 되었나

‘아버지의 탄생’

피터B. 그레이·커미트G. 앤더슨 지음

누구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있다. 그러나 요즘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머니만큼 인정받지 못한다. 어머니 못지않게 자식에 애정을 품고 헌신하건만 부정과 극복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가족의 철저한 무시 속에서 외톨이로 남는 게 다반사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언제부터인가 ‘고개 숙인’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인류학자 피터 B. 그레이와 커미트 G. 앤더슨이 함께 쓴 ‘아버지의 탄생’은 진화론과 비교생물학 등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본질에 대해 상세하게 들여다 본다.

저자들은 먼저 인류의 조상에게서 아버지의 ‘보살핌’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시점을 진



아버지의 탄생

화론적 관점에서 살펴, 현생 인류에게 있어 아버지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핀다. 연구에 따르면 암컷뿐 아니라 수컷 역시 자녀 양육에 깊이 관여하는 조류와 달리 포유류의 경우 수컷이 자녀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늑대, 난쟁이 몽구스, 코요테 등 무리생활을 하는 일부 육식동물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컷 포유류들의 “세계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사정하는 순간에 끝난다”는 것이다. 다만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일부일처제와 함께 ‘아버지의 보살핌’을 독특한 특징으로 지니게 됐고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이 커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략 1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등장하면서부터 아버지의 역할은 특화됐다고 한다.

이처럼 ‘아버지의 보살핌’이 이루어진 역사는 사실 길지 않은 편이며 그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낸다. 가령 인도의 아버지는 하루에 약 3~5시간을 어린 자식 옆에서 보내는 반면 일본의 아버지는 고작 20분만을 어린 자식에게 할애한다. 소(小)부족들의 경우에도 생계 유지 방식, 남성의 부족간 전쟁 참여 여부, 혼인 제도의 유형 등에 따라 아버지의 보살핌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보살핌’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남성이 보호해야 할 평생의 적대집단의 위협도 줄어든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의 물리적 역할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저자들은 10년 전 미국 조지아 주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들려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주장한

다. 출생증명서와 유아사망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연구결과를 보면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적히지 않은 미혼모의 아이는 아버지 이름이 적힌 기혼모의 아이에 비해 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2.5배 가량 높았다고 한다. 책은 또 아버지가 되려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결혼이 제 의미를 잃어가는 요즘 결혼이 남성에게, 아버지 되기에 끼치는 영향과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볼게 한다.

끝없이 추락하는 아버지의 위상이 우리 사회만의 현상이 아닌 만큼 저자들의 연구가 국가적 책임 등 현대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초록물고기·2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어머니, 나의 어머니

‘엄마 살아계실 때...’ 신현림 지음

‘어머니’ 강상중 지음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느 음절에든 눈물이 배어 있을 것 같다. 다 내렸기에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남은 건 슬픈뿐인 ‘눈물의 여왕’ 어머니.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련한 이름 ‘어머니’를 주제로 한 책들이 나왔다.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들’은 시인이자 사진작가인 신현림씨가 3년 전 엄마를 잃고 나서 쓴 가슴 찡한 이야기다. 언제나 후회하는 뉘다. 만약 엄마



가 살아 있다면, 저자가 엄마와 하고 싶은 일들을 담았다. 저자가 밝힌 엄마와 하고 싶은 것들은 의외로 사소하다. 함께 있어 주기, 일대기 되돌아보기, 포옹하기, 단둘이 여행하기, 혼자만의 공간 마련해 주기, 목욕탕 가기, 매일매일 통화하기.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들은 고스란히 슬픔으로 남는다.

저자는 “자식들에게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

께해준 엄마였다. 그런 엄마의 은혜를 갚는 방법도 엄마 곁을 지켜 드리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흐름출판·1만3000원>  
한국 국적으로는 최초로 도쿄대 교수가 된 강상중 교수가 6년 전 세상을 뜬 어머니의 삶을 돌아본 자전적 에세이 ‘어머니’는 애절한 사모곡이다.

식민지 여성으로 태어나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타국에서 살았던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담담하게 그렸다. 태평양전쟁의 혼란 속에 큰아들을 잃은 그의 어머니는 고물상을 차리고 힘겨운 타향살이를 이어간다. 주변의 차별과 수도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헌신 해온 그녀의 삶은 고단한 제일 한국인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저자는 “어머니는 자신들을 에워싼 세상의 편견에 가득 찬 시선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상을 공경하는 제사가 어머니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었다”고 말한다.

<사계절·1만1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시간 거꾸로 돌리기

‘마음의 시계’

엘렌 랭어 지음



마음의 시계

미국 심리학자 엘렌 랭어의 ‘마음의 시계’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든지 ‘젊게 살면 젊어진다’와 같은 말들이 단순히 희망적인 수사(修辭)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노인들을 불러모아 한쪽 한 시골의 옛 수도원에 머물게 하고 지금이 마치 20년 전인 1959년인 양 지내달라고 부탁했다. 1979년 “정신이 육체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시행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다.

일주일 후 실험에 참가한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실험 전보다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체중도 늘어났으며 악력도 현저히 나아졌다.

책에는 저자가 이 실험 이후 30년간 연구해온 ‘긍정의 심리학’ ‘가능성의 심리학’이 정리돼 있다.

저자는 이를 2007년 호텔 객실 청소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다시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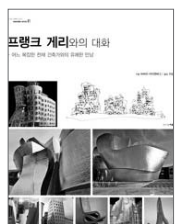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자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 믿음은 적어도 식이 요법이나 주치의만큼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며 “이제는 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의식을 집중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릴 때”라고 강조한다.

<사이언스북스·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천재 건축가 게리, 그를 만나러 갑니다

‘프랭크 게리와 대화’

바버라 아이젠버그 지음



프랭크 게리와 대화

그의 건축물은 재미있다. 기기묘묘한 모양새와 독특한 재질이 인상적이다. 동화속이나 가상 세계에서 볼 법한 작품들도 많다.

한도시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바꿔놓은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영화 ‘슬로이스트’에서 강한 인상을 준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트 디즈니 콘서트홀,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는 이들이 꼭 사진을 찍곤하는 네덜란드 보름홀트사 건물 등 그의 작품들은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일으킨다.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로 20년간 게리와 이야기를 나눈 저자 바버라 아이젠버그가 ‘프랭크 게리와 대화’를 펴냈다. ‘어느 복잡한 천재 건축가와와의 유쾌한

만남’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1929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1989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유년시절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만날 수 있는 긴 대화집이다.

책에서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많은 미술관과 콘서트홀을 지은 게리의 음악과 미술에 대한 게리의 뛰어난 안목을 접할 수 있다.

책에서는 게리가 설계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단순한 완성품이 아니라 컴퓨터 설계 과정, 모형, 스케치 등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준다. 위즈덤 퍼플이 펴내는 ‘위너비 시리즈-읽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시리즈의 첫번째 권이다. <위즈덤 퍼플·2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하늘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 본 세상

‘밤 하늘의 바둑판’

오세영 지음



밤 하늘의 바둑판

영광 출신 오세영(69) 시인이 ‘문학의 영원성과 감동’을 강조하며 인간과 자연을 바라본 시집 ‘밤 하늘의 바둑판’을 냈다.

시 전문 출판사 서정시학이 간결하고 함축적인 서정시 본연의 아름다움 ‘극서정시’를 표방, 출간하고 있는 시리즈로 조정권·이하석·최동호 시인에 이어 네번째 권으로 낸 것이다.

“나는 순진하고, 미련하고, 낮은 시인일지 모르다”며 최근 유행한 난해한 흐름의 시를 비판하는 그는 때로는 동시처럼 순수한 시선으로 오묘한 세상을 바라본다.

시집에 실린 50여 편의 시는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하늘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듯, 지구와 인간

의 삶의 겉모습이 아닌 존재의 본질적 진실을 내려다보려는 시인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는 또 투명한 시심으로 들여다본 삶에 대한 추억담, 우리 것의 우수성과 가치 등을 곁길한 시어로 전해준다.

오 시인은 “나를 희생하면서도 행복함을 느끼는 사랑처럼 논리에 맞지 않고 모순적인 위대한 진리가 있다”며 “그것을 발견해 언어로 형상화하는 것이 시의 영원성”이라고 털어놓았다.

오 시인은 1968년 ‘현대문학’에 시 ‘잠 깨는 추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반란하는 빛’ ‘모순의 흙’ ‘무명연시’ 등을 냈다. 소설문학상,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으며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서정시학·9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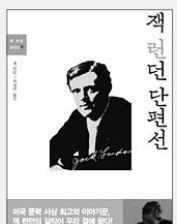
▲로기원을 만났다=‘한없이 멋진 꿈에’의 작가 조해진(35)씨의 두번째 장편소설. 고향을 떠나 떠나면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완벽한 이방인’으로 유명처럼 떠돌아다녔던 탈북자의 삶을 그렸다. 방종작가였던 ‘나’가 벨기에로 밀입국한 스무 살 청년 탈북자 로기원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로기원은 중국에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시체를 팔아 마련한 단돈 650유로를 품에 안고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브뤼셀로 들어간다. <창비·1만원>

▲조선을 뒤흔든 21가지 재판 사건=역사소설을 주로 써온 이수광(57)씨가 조선의 대표적인 형사재판 21가지를 통해 조선의 법 정신과 사회상을 짚어냈다. 바람난 남편의 아내 살인 사건, 개가한 사촌 형수의 남편 살인사건 등 조선시대 일어났던 엽기적이고 잔혹한 21가지 사건을 통해 조선시대의 법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각종 관례들, 아울러 각 재판에서 노출된 법리와 쟁점을 정리한다.

<문예춘추사·1만4800원>

▲고현정의 결=연예계 대표 피부미인 고현정의 알려지지 않은 뉴티 시크릿을 담았다. 여성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피부를 가진 대표 여배우의 일상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낸 6개월간의 뉴티 라이프 다큐멘터리 ‘고현정의 결’ 제작과정과 에피소드를 컬러사진과 함께 엮었다. <중영MB·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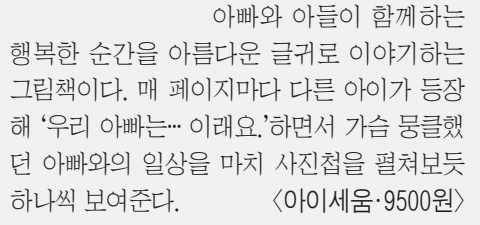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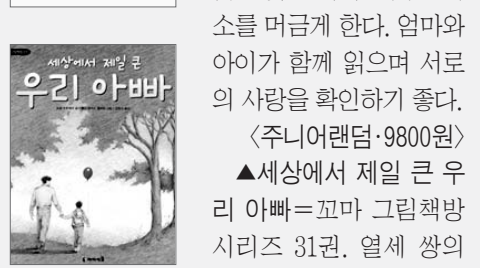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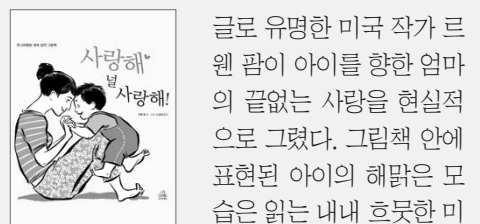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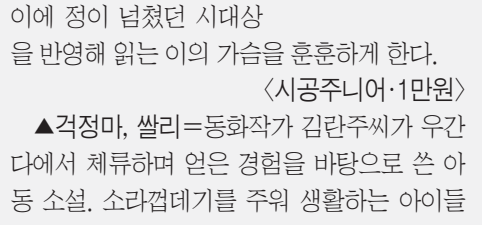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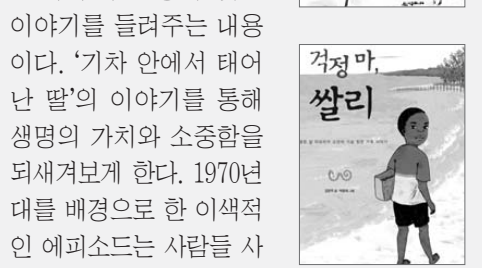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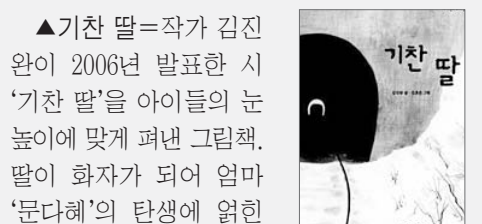
▲책 런던 걸작선 7-책 런던 단편선=미국 문학 사상 최고의 이



야기꾼 잭 런던의 단편 11편을 모았다. 이번엔 실린 ‘드넓은 살원’ ‘차디찬 공기’ ‘숨 막히는 고요’ ‘회색빛 하늘’ 등은 모두 극한의 세계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잭 런던의 경험이 녹아들어 더욱 흥미진진하고 묘사가 손에 잡힐 듯 와닿는다. 미지의 세계로 몰려든 온갖 인간 군상의 모습을 감칠맛 나게 그려놓았다. <공리·1만8000원>

▲달에서 떨어진 사람들=소설 ‘차이한 가운 피부’로 국내에 알려진 스페인의 작가 겸 문학인류학자인 알베르트 산체스 파놀의 소설 집. 기발한 상상력과 날카로운 풍자가 돋보이는 단편 열세 편이 실렸다. 표제작은 달에서 지구로 이주하게 된 낯선 존재들이 인간과 어떻게 공존하게 되는지, 두 집단 사이의 정치적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묘사한다. <들녘·1만1000원>

▲파운틴헤드1·2=미국 소설가 에인 랜드가 쓴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던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워드 로크라는 이상주의적 건축가의 모험담을 다룬 소설. 가난한 건축학도 하워드 로크는 타인의 시선과 억압에 아랑곳 하지 않는 철학적 이상과 열정을 보여준다. 근대 미국의 흥미진진한 건축사가 펼쳐진다. 1943년 발표된 이래 250만 부 이상이 팔린 철학소설로 건축학도의 필독서로도 꼽힌다. <휴머니스트·1권2만5000원, 2권2만2000원>



▲기찬 딸=작가 김진완이 2006년 발표한 시 ‘기찬 딸’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펴낸 그림책. 딸이 화자가 되어 엄마 ‘문다혜’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다. ‘기찬 안에서 태어난 딸’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볼게 한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색적인 에피소드는 사람들 사이에 정이 넘쳤던 시대상을 반영해 읽는 이의 가슴을 훈훈하게 한다. <시공주니어·1만원>

▲걱정마, 쌀리=동화작가 김란주씨가 우간다에서 체류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아동 소설. 소라껍데기를 주워 생활하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생활풍습과 순수한 삶의 태도를 소개한다. 열한 살의 아프리카 소년 쌀리와 한국인 사업가 아저씨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파란자전거·9500원>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니어랜덤 세계 걸작 그림책이다. 아름다운 그림과 가슴 뭉클한

행복한 순간을 아름다운 글귀로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매 페이지마다 다른 아이가 등장해 ‘우리 아빠는... 이래요.’하면서 가슴 뭉클했던 아빠와의 일상을 마치 사진첩을 펼쳐보듯 하나씩 보여준다. <아이세움·9500원>

▲산이 웅얼웅얼=담양 출신 서재환 시인의 동시집. 봄, 여름, 가을, 겨울 4부로 나눠 계절의 순환을 아름답게 노래했다. 경쾌한 시어의 리듬에 빠져들게하고, 푸른 산과 맑은 새소리를 끊임없이 맞출 수 있다. 서정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환경 생태, 인간과 삶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잘 버무렸다. <창경구리·9000원>

## 어린이 책꽂이

글로 유명한 미국 작가 르웬 램이 아이를 향한 엄마의 끝없는 사랑을 현실적으로 그렸다. 그림책 안에 표현된 아이의 해맑은 모습은 읽는 내내 흐트랄 미소를 머금게 한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좋다. <주니어랜덤·9800원>

▲세상에서 제일 큰 우리 아빠=피파 그림책방 시리즈 31권. 열세 쌍의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을 아름다운 글귀로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매 페이지마다 다른 아이가 등장해 ‘우리 아빠는... 이래요.’하면서 가슴 뭉클했던 아빠와의 일상을 마치 사진첩을 펼쳐보듯 하나씩 보여준다. <아이세움·9500원>

▲산이 웅얼웅얼=담양 출신 서재환 시인의 동시집. 봄, 여름, 가을, 겨울 4부로 나눠 계절의 순환을 아름답게 노래했다. 경쾌한 시어의 리듬에 빠져들게하고, 푸른 산과 맑은 새소리를 끊임없이 맞출 수 있다. 서정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환경 생태, 인간과 삶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잘 버무렸다. <창경구리·9000원>